

#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A Systematic Review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mily Resilience Programs : Focusing on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Journals

이은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un-Hee Lee(leehangel74@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등재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최근 발표된 2016년까지의 논문 16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준거는 크게 두 영역인 '프로그램 수행요소'와 '프로그램 개발요소'로 나누었다. 프로그램 수행요소의 하위 영역은 6가지로 연구대상, 설계 유형, 실행기간 및 시간, 진행자, 연구 방법, 측정도구와 효과 분석이다. 프로그램 개발요소의 하위영역은 3가지로 개발 근거, 개발 목적, 프로그램 내용이다.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과정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각 가족의 다양한 문제와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가족탄력성 |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 체계적 문헌고찰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mily resilience programs focusing on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Journals, to provide basic data on development of future family resilience programs, and present research directions. For this, I analyzed the contents of 16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Journals from 2003 to 2016. The analysis was divided into the performance elements of the program and the development factors. The six sub-areas of program execution factors are subjects of study, research design, program duration and time, facilitator, research method, scales and effect analysis. The three sub-areas of the program development factors are the development base, the purpose of the program development, and the main content of the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amily resilience program considering the various problems of each family and the specific environment in the future.

■ keyword : | Family Resilience |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 | Systematic Review |

## I. 서론

가족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 발달단계에서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집단이다. 가족은 각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마다 독특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 가족문화에서는 전 생애생활주기를 통하여 가족 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결속력을 매우 중요시 여겨왔다 [1]. 하지만 한국사회는 급속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이전 세대에 문제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 관련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가족해체 현상도 급증하게 되었다. 2018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혼건수는 10만 6천 건수에 이른다[2].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구조와 가족해체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위기감을 주고 특히 어린 자녀들은 배신감, 상실감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가족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혼란은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3].

반면, 가족이 당면한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함께 결속력을 유지하고 보호적인 태도로 적응해 가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가족의 특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다[4]. 이 이론은 개인의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가 가족에게 적용된 것인데, 고 위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개인의 탄력성이 여러 어려움과 위기상황에도 적응적(positive adaptation)이고 탄력적인 가족의 특성들과 유사하다고 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적용하고 있다[5].

가족탄력성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간의 잠재력과 가족의 내적인 능력을 믿고, 가족의 내·외 자원을 이끌어 내고 활용하여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가족이 지금까지 가족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해 왔는데, 그러한 가족의 내적인 힘은 어떤 것인지를 찾고, 가족의

특징과 차원 속성을 끌어내어 조직화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역경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5-7]. 더 나아가 가족은 가족에게 당면한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가족탄력성 시각을 통해 과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결함파 문제 중심적 시선에서 현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초점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8][9].

가족탄력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들은[8][10-12] 가족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위기로 인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적응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족에게 일어난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적용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가족탄력성임을 제시하였다.

가족탄력성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Walsh[5]는 가족탄력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을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신념체계는 가족들이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와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목적 지향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조직패턴은 가족 구성원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안정성과 변화에 따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가족 조직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과정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솔직한 감정표현으로 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소통 과정으로서 이 세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가족탄력성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13]. 한편, McCubbin 등[14]은 가족탄력성의 하위 개념을 가족 스키마, 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자원, 사회적 지지, 문제 해결과 대처로 분류하였는데, 가족 스키마는 Walsh의 신념체계에 해당되고, 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자원, 사회적 지지는 Walsh의 조직패턴에 그리고 문제 해결과 대처는

Walsh의 의사소통 과정에 해당되어,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8]. 그러나 Walsh는 가족의 강점을 기반으로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어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나 갈등에서도 의미를 창조하고, 가족 도전을 극복하는 협력, 능력, 확신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족탄력성의 구성 요소는 각각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적용할 경우,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이끌어내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가족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족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가족의 난관을 해결해 가는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실천 모형이 된다.

양옥경 외[15]는 Walsh[5]의 가족탄력성 개념과 가족을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강점 관점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둔 생태적 관점을 토대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가족원의 질환과 장애, 저소득 그리고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의 경우, 질환과 장애를 가진 가족원의 상황과 정도 그리고 발달단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가족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하고 실제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 내용 적용 및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프로그램 수행요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성이 높고 각 가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화된 수행요소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향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가족의 특성과 한국적 가족문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연구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관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연구정보 검색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한국 학술정보(Kiss.Kstudy.com),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www.dbpia.co.kr)를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검색어 ‘가족 탄력성’, ‘가족 레질리언스’, ‘가족 회복력’, ‘가족 복원력’, ‘가족기능 회복력’, ‘가족 적응 유연성’, ‘가족 극복력’으로 수집하였고, 이후, ‘프로그램’과 ‘개발’이라는 검색어를 추가 검색하여 가족탄력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가족 탄력성 프로그램에 관련된 논문이 처음 등재된 해는 2003년이었고, 가장 최근 등재된 해는 2016년이었으며, 지난 14년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은 총 19편[13][15-32]이었다. 이러한 1차 검색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논문 분석’ 목적에 따라 19편의 학술 논문 중,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 또는 수행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논문과,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수행한 논문을 선정하는 2차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총 16편이다.

### 2. 분석준거 및 요소

가족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의 일부분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분석 준거 틀[33]과 치매예방 프로그램[34], 감정노동관리[35]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의 분석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준거는 크게 ‘프로그램 수행요소’와, ‘프로그램 개발요소’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프로그램 수행요소의 하위영역은 6가지로 연구대상, 설계 유형, 실행기간 및 시간, 진행자, 연구방법, 측정도구와 효과 분석이다. 프로그램 개발요소의 하위영역은 3가지로 개발 근거, 개발 목적, 프로그램 내용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가족 탄력성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근거 및 요소로 분류한 프로그램 수행요소와 프로그램 개발요소의 두 영역과 9가지 하위 영역을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분석근거 및 요소

영역	하위 영역
프로그램 수행요소 분석	프로그램 연구대상
	프로그램 설계유형
	프로그램 실행기간 및 시간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연구방법
프로그램 개발요소 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와 효과분석
	프로그램 개발 근거
	프로그램 개발 목적 프로그램 내용

표 2. 프로그램 수행요소 분석

연구 (년도)	연구대상	설계유형	기간	프로그램 진행자	연구 방법	측정도구
			시간			
양옥경 외 (2004)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 총9명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8주 120분/8회 총16시간	사회복지사 1인, 보조진행자 1~2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 효능감 척도, 가족관계 척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
이인수 (2004)	정신장애인의 부(8), 모(4) 총12명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6주 180분/6회 총18시간	가족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정신보건수련생 1인	양적연구	자아존중감 척도, 가족기능도 척도
양옥경 외 (2006)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 총13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8주 120분/8회 총16시간	사회복지사 2인	양적연구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 효능감 척도, 가족관계 척도
최정숙 (2007)	예비입양 부(1), 모(5) 총6명		5주 120분/5회 총10시간	연구자	질적연구	
김연수 (2008)	아동기 자녀를 둔 다 문화 가족의 여성결 혼이민자 총13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6주 90분/6회기 총9시간	연구자	양적연구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 효능감,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
최정숙 (2008)	결혼 5~6년차 남편(7), 부인(7) 총14명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4주 180분/4회 총12시간	알 수 없음/ 전문사회복지 실천인력 1인과 보조진행자 1~2인 구성이 바람직함	양적연구, 질적연구	가족관계 척도,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척도, 부부의사소통척도, 결혼적응 척도, 참여자 평가
최정숙 (2009)	결혼10년~20년차 중년기 남편(4), 부인(6) 총10명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4주 180분/4회 총12시간	연구자, 보조진행 1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가족강점척도, 부부 적응성, 부 부 응집성 척도, 부부의사소통 검사, 결혼적응 척도, 참여자 평가
김연수 (2010)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 총11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6주 90분/6회 총9시간	연구자	양적연구, 질적연구	부부관계 질, 결혼만족도, 가족건강성 척도, 부부갈등 대처, 포커스 그룹 운영

### III. 연구결과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하고, 기존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행한 연구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요소 분석과, 개발에 관한 요소 분석으로 나누어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 1.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수행요소 분석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수행요소 분석은 선정된 16편의 논문의 연구대상, 설계 유형, 실행기간 및 시간, 진행자, 연구방법, 측정도구와 효과 분석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김고은 (2011)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 총17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7주 120분/7회 총14시간	주진행자 1인, 보조진행자 1인	양적연구	양육 참여 척도, 양육행동 척도, 장애자녀에 대한 태도 측정척도, 친밀감 척도
양무희 외 (2012)	암환자(28)와 가족(28) 총46명 두 집단 운영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4주 120분/4회 8시간	연구자, 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 보조진행자	양적연구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 척도,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 도 II, FIRM 척도, 가족기능평가 척도
김은정 (2013)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5), 어머니(10) 총15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8주 120분/8회 총16시간	연구자	양적연구, 질적 연구	가족강점 척도, 가족기능평가척도, 가족문제 해결 의사소통척도, 역 할 안정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부모 양육태도 척도, 인터뷰
임희수 외 (2013)	만성 조현병 환자가족 총34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5주 50분/10회 총8시간 30분	알 수 없음	양적연구	가족 강인성 척도, 가족 일관성 척도, 가족문제 해결 의사소통척도, 가족 위기 대처전략 척도, 사회적 자원 측정도구, 가족적응 측정도구
석혜경 외 (2015)	치매환자 가족 머느리(3),부인(1), 딸 (3), 아들(1)총8명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6주 120분/6회 총12시간	연구자 2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가족탄력성 척도, 치매노인 가족 부담부담척도, 참여자 평가
최정숙 외 (2015)	이혼가족의 부(1), 모(24), 자(19), 녀(20) 총64명	단일실험집단 사전·사후	2일 1박 2일 가족 캠프	연구자 1인, 실무자 3인, 가족소집단 운영시 사회복지사 4인	양적연구, 질적연구	가족관계 척도,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 도, 가족탄력성 평가척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 척도, 참여자 집단 평가회
방미란 외 (2016)	치매노인 가족 총36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8주 60분/8회 8시간	연구자, 정신보건간호사 2인	양적연구	가족탄력성 척도, 부양부담 척도, 가족 적응 척도, 우울 척도, 지각 된 건강상태 척도,
김정은 (2016)	저소득층 중학생 부(11), 모(12)와 자 (11), 녀(14) 총48명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5주2일 180분/5회 총15시간	연구자, 보조진행자 2인	양적연구	가족탄력성 척도, 문제 해결 능력 척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16편의 연구대상은 초등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5%), 성인 정신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25%), 정신장애아동 자녀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6.25%), 예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6.25%),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5%),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5%),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5%), 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1편(6.25%),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2편(12.5%), 저소득층 중학생 자녀를 둔 연구 1편(6.25%)으로 다양한 형태

의 가족을 대상으로 큰 편차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가족원의 연구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총 16편의 연구 중 가족원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6편(37.5%)으로 대체적으로 가족원 한 사람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분석대상의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8편(50%), 질적 연구 1편(6.25%),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한 통합 연구가 7편(43.75%)으로 양적 연구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연구의 비율도 높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의 설계 유형은, 단일 실험 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한 연구 6편(37.5%),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한 연구 7편(43.75%),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실험집단 설계로 진행한 연구 2편(12.5%),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 1편(6.25%)이었다. 이에 따라 각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를 설계 유형에 따라 요약하고자 한다.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한 연구의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옥경 외[16]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 양육 효능감 척도, 가족관계 척도, 프로그램 목표 달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하는 도구의 질문은 총 100문항이다. 주 1회 8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설문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 부모 자녀관계, 부모역할 수행 만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양육 효능감과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 능력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 간의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7.8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질적 평가로서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강점을 발견하고, 의사소통기술 및 칭찬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양육방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용 존중 영역과 인정 책임영역의 평균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인수[17]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가족기능도 척도의 총 31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게 180분씩 6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후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기능 수행은 전반적으로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정숙[21]은 가족 통제감, 가족강점 척도를 사용하여 신념체계를 측정하고,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가족자원 척도를 이용하여 조직유형을 측정하였으며, 가족기능평가 척도와 결혼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과정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평가를

포함하여 총 131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 실험집단에게 180분간 4회를 진행한 결과 가족 통제감, 가족강점, 부부 적응성, 가족자원, 정서반응, 결혼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부부 응집성,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종결 후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부부관계 조정의 기회, 의사소통 기능 향상, 상호협력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 평가 10점 만점에서 평균, 8.18로 나타났다. 최경숙[22]은 가족강점 척도,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척도, 부부 의사소통 검사, 결혼적응 척도와 프로그램 효과 및 운영사항에 관한 참여자 평가에 대한 항목 총 107문항과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참여자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단일 실험집단에게 180분씩 4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가족강점, 부부 적응성, 부부 응집성, 부부의사소통, 결혼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점수는 총 10점 만점에 평균점수 8.30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참여자의 서술을 분석한 결과 자신 및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기회, 부부관계 긍정요인 발굴, 대화 기회, 대화 태도, 대화방법 변화, 부부관계 조정, 부부관계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사항 인식,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자체의 의의를 가지게 되는 총 6개로 의미로 범주화하였다. 석혜경 외 [29]는 가족탄력성 척도,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척도 94문항과 프로그램 효과 및 구조에 관한 참여자 평가 문항 7개로 총 101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단일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120분씩 6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가족 탄력성의 하위 개념인 조직유형과, 의사소통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고, 신념체계는 사후 점수가 사전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로는 총 70점 만점에 평균 64.9였고, 질적 분석 결과 10개의 범주인, 긍정적 생각, 새로운 의미 발견, 가족의 강점발견, 상황에 따른 역할 배분,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방법 습득, 새로운 자원의 발견, 대화방법 변화, 문제 해결 방법 습득, 자신을 돌아

보는 기회, 나의 새로운 모습 발견이 도출되었다. 최정숙 외[30]는 가족관계 척도, 가족적 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도 가족탄력성 평가척도 36문항과 참여자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양적 평가 7문항으로 총 43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1박 2일간 가족캠프를 진행한 연구결과 가족강점과 가족 응집력에 대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가족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목표 달성 척도는 70점 만점에 평균 58.88을 나타냈다. 참여자 집단 평가 회를 통한 질적 분석 결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가족강점에 주목해 볼 기회, 가족강점 새롭게 포착, 상호 관계적 강점 발견, 역경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획득,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부모·자녀 상호지원, 가족 관계의 소중함 깨달음, 가족관계 향상 노력 결심, 공동체성과 유대감, 대화의 필요성 및 대화법 학습, 새로운 대화법 시도 결심, 한 부모로서의 대화 부족 일면 수용 요망, 실천의 어려움이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된 연구의 측정도구와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연수[36]는 부부관계 질, 결혼만족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 부부갈등 대처 척도의 총 54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실험집단에게 90분씩 6회를 진행한 결과 부부관계 질, 결혼만족, 가족건강성, 부부갈등 대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집단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7가지의 범주화가 도출되었는데, 부부간의 대화가 증진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며, 결혼생활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고, 서로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남편이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이전보다 더 도와주게 되었고, 화가 날 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김고은[24]은 양육 참여 척도, 양육행동척도, 장애자녀에 대한 태도 측정척도, 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고 120분간 7회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 결과 양육 참여, 장애자녀에 대한 태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장애자녀에 대한 친밀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양무희[25]는 가족 통제감, 가족강점 척도,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신념체계 척도, 가족적 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도 II, FIRM 척도, 가족기능평가척도 총 70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에게 120분씩 4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결과 신념체계의 하위 영역인 가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 및 영성과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 변인인, 명료성, 개방적 정서 표현, 조직유형의 하위영역인 융통성, 연결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으나, 사회적 자원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은정[26]은 신념체계 측정을 위한 가족강점 척도, 의사소통과 조직유형을 측정을 위한 가족기능평가척도, 부모 양육태도 척도 총 52문항과 사회적 지지표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120분씩 8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결과 신념체계와 의사소통의 명확성, 사회적 지지, 반응적 양육태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에 비해 상호 협력적 의사소통이나 가족 내 역할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희수 외[27]는 가족 강인성 측정도구, 가족 일관성 측정도구, 가족문제 해결 의사소통 측정도구, 가족 위기 대처전략 측정도구, 사회적 자원 측정도구, 가족 적응 측정도구 총 91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50분씩 10회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결과 가족 강인성, 가족 일관성, 가족문제 해결 의사소통, 가족 위기 대처전략, 사회적 자원, 가족 적응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미란[31]은 가족탄력성 척도, 부양부담 척도, 가족적응 척도, 우울척도의 총 125문항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에게 60분씩 8회기 프로그램 진행 결과 가족탄력성과 부양부담, 가족적응, 지각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김정은[32]은 가족 탄력성 척도 27문항과 문제 해결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집단에게 180분씩 5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어 1박 2일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 강인성과 문제 해결 능

력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부모와 자녀의 프로그램 효과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 자녀 모두에게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가족 강인성, 가족 응집성,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실험집단 설계로 진행된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옥경 외[19]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실험집단에게 120분씩 8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사전·사후·추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와 양육 효능감 척도, 가족관계 척도를 사용하여 총 111문항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부모역할 만족도의 경우 사후 점수는 상승하였지만, 추후 점수는 사후 점수보다 다소 감소되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는 사전·사후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추후의 변화량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산출되지 않았다. 김연수[23]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실험집단에게 90분씩 6회기를 진행하고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와 양육 효능감 척도,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 총 84문항으로 사전·사후·추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가족관계도 변화되었다.

최정숙[20]은 120분씩 5회기 프로그램 진행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신념체계 면에서 긍정적인 힘과 시각을 갖게 되었고 조직유형 면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연결됨을 경험하였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며 상호교류가 촉진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각 연구의 설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된 연구에서 대부분 가족의 강점과 응집력, 적응성, 의사소통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수용 존중 영역과 인정 책임영역, 가족 기능 수행, 신념체계, 문제 해결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모두 평균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된 연구는 장애자녀에 대한 친밀감, 사

회적 자원, 가족 내 역할 안정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 가족 강인성, 가족의 의사소통의 명확성,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이밖에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실험집단 설계로 진행된 두 연구 모두 양육 효능감이 추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양옥경 외[19]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대한 추후 검사 결과 사후검사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시행 기간 및 시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총 16편의 논문 중 8주 동안 실험한 연구는 4편(25%), 7주 동안 진행한 연구는 1편(6.25%), 6주 동안 진행한 연구는 4편(25%) 5주 동안 진행한 연구는 2편(12.5%), 4주 동안 진행한 연구는 3편(18.75%), 그밖에 5주 2일 진행한 연구 1편(6.25), 2일간 연속으로 진행한 연구 1편(6.25%)이었다. 기간이 가장 짧았던 프로그램은 캠프를 활용한 연구였고, 8주와 6주 동안 진행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회기 당 시간으로는 180분 4편(25%), 90분 2편(12.5%), 60분 1편(6.25%), 50분 1편(6.25%), 120분 7(43.75%) 편으로 회기 당 120분 진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프로그램 진행의 총 시간은 18시간이 1편(6.25%), 총 16시간 3편(18.75%), 총 15시간 이상이 1편(6.25%), 총 10시간이 1편(6.25%), 총 9시간이 2편(12.5%), 총 8시간이 3편(18.75%), 그 밖에 1박 2일의 시간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총 진행 시간은 1박 2일과 8시간, 18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진행자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 1인이 진행한 연구는 4편(25%), 연구자 1인과 보조 진행자 1~2인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가 12편(75%) 그밖에 대 집단의 경우 연구자 1인과 보조 진행자 2인 이외에 보조 진행자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자와 보조 진행 인원수는 연구대상자의 참여 인원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프로그램 개발요소 분석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요소 분석은 선정된 16편

논문의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프로그램 개발요소 분석

연구자	개발 근거	개발 목적	프로그램 내용
양옥경 외 (2004)	· 1차 양옥경 외(2003)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회기별로 재구성	부모역할 및 가족의 기능 강화와 관계 향상	· 신념체계- 부모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각, 신념체계 점검/ 가족과 자녀의 감정 찾기와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 이해 · 조직유형- 가족규칙 점검과 역할분담 살핌/ 부모 자녀 및 부부 관계 향상 방법/ 자녀행동에 대한 양육방법 · 의사소통 과정-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녀 및 가족과의 대화/ 협력적 문제 해결/스트레스, 일 관리/ 주변 도움 요청
이인수 (2004)	·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가족기능 최대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핵심감정 이해/ 가족 역동성 이해/ 가족의 세대 간 관계 조망/ 가족 간의 의사소통 이해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훈련/ 가족탄력성/ 가족주기에 따른 감정 투영/ 가족의 감정 수용과 인정
양옥경 외 (2006)	· 1차 양옥경 외(2003)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양옥경 외(2004)가 회기별로 재구성하였고, 프로그램 효과성 재검증을 위해 수행함	부모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	· 신념체계- 부모의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각, 신념체계 점검/ 가족과 자녀의 감정 찾기와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 이해 · 조직유형- 가족규칙 점검과 역할분담 살핌/ 부모 자녀 및 부부 관계 향상 방법/ 자녀행동에 대한 양육방법 · 의사소통 과정-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녀 및 가족과의 대화/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 스트레스, 일 관리/ 주변 도움 요청
최정숙 (2007)	·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 강점관점, 체계적 관점, 발달관점, 예방적·사전적 관점	예비 입양 부모의 가족 적응과 대처	· 신념체계- 입양의 긍정적 의미와 시각/ 초월과 영성 강화를 위한 역할 모델 · 조직유형- 가족유대 및 협동력 강화/ 사회적 자원 발굴 · 의사소통 과정- 명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
김연수 (2008)	· 탄력적 부모 되기 프로그램(양옥경 외, 2004년)을 총 8회기에서 6회기로 수정	다문화 가족의 부모역할 역량강화	· 신념체계- 부모의 신념체계와 양육에 관한 문화적 차이 점검/ 가족과 자녀의 감정 찾기 · 조직유형- 가족규칙 점검하기 및 효과적인 역할분담/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 향상 기술과 효과적인 자녀 훈육 · 의사소통 과정-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 협력적 문제 해결하기 및 부모 자기 관리
최정숙 (2008)	·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 강점관점, 생태체계관점, 발달관점, 예방적·사전적 관점	결혼 초기 부부의 새로운 국면 대처와 적응	· 신념체계-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신념 강화/ 부부의 감정과 잠재력 찾기/ 부부의 역할 모델 찾기 · 조직유형- 가족 도전과제에 따른 가족규칙과 역할분담 조절 및 역량 강화/ 부부의 협력적 태도 및 친밀감 강화/ 가족 외부 사회적 자원 찾아 사용 · 의사소통 과정- 명료하고 개방적인 부부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강화
최정숙 (2009)	· 최정숙(2008)의 결혼 초기 부부의 가족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을 결혼 중기에 맞게 재구성함	결혼 중기 부부의 가족탄력성 강화	· 신념체계- 부부의 감정 인식과 부부관계 돌아보기 · 의사소통 과정- 명료한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적인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조직유형-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 적응 및 응집성 강화
김연수 (2010)	·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 강점관점, 생태체계관점, 발달관점, 효과적인 가족기능의 핵심요소를	다문화 부부의 결혼 만족도 향상	· 신념체계- 부부 및 가족의 감정 찾기/ 부부의 문화적 차이 이해와 수용 · 조직유형- 부부만의 시간 계획 및 친밀한 부부관계 만들기/ 서로 돕는 부부 규칙과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방법 찾기 · 의사소통 과정 및 자기 관리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분노조절과 문제 해결 기술 배우기/ 효과적인 자기 관리 계획 세우기
김고은 (2011)	· Walsh(1996)의 가족탄력성 이론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 증진 및 친밀감 강화	· 신념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및 장애자녀에 대한 이해와 강점관점 시각 전환 · 조직패턴 가족의 유연성 및 바람직한 훈육방법/ 사회적 자원 탐색 · 의사소통 과정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적인 문제 해결 기술 증진

<p>양무희 (2012)</p>	<p>·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 강점관점, 탈 병리적 관점, 예방적·사전적 관점</p>	<p>암 환자 가족의 도전 적응과 사랑 촉진</p>	<p>· 신념체계- 가족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가족 신뢰하기 · 조직유형- 가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율성 인정과 가족 응집성, 도전 및 대처능력 향상/ 사회적 지지 넓혀가기 · 의사소통 과정- 가족의 역경에 대한 명료하고 개방적인 정서 나누기 /의사결정 공유하기/ 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초월과 영성- 죽음에 대한 직면과 well-dying/ 가족의 관계와 상처 회복</p>
<p>김은정 (2013)</p>	<p>· Walsh(2002)의 가족탄력성 이론</p>	<p>한 부모의 양육태도 향상</p>	<p>· 신념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 · 조직유형- 가족 유연성 향상 및 양육방법 증진 · 의사소통 과정- 명확하고 개방된 감정표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훈련 · 조직유형- 실질적인 자원 탐색/ 한 부모 가족의 강점 강화 및 상호 지지</p>
<p>임희수 외 (2013)</p>	<p>· McCubbin과 McCubbin(1993)의 극복력 모델 및 관련 문헌</p>	<p>만성 조현병 환자가족의 가족탄력성 증진</p>	<p>조현병의 특성과 가족의 역할/ 가족의 강점/ 가족의 위기와 행동 및 정서적인 반응/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가족 의사소통 유형과 효과적인 방법/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대처방법/ 적절한 감정 표현과, 이완, 대처, 타임아웃/ 가족자원 파악과 활용</p>
<p>석해경 외 (2015)</p>	<p>·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 · 생태체계관점, 발달관점</p>	<p>치매노인 가족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처</p>	<p>· 신념체계- 치매와 가족이 직면한 도전 이해/ 가족의 강점을 강화/ 역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 해석 · 조직유형- 가족 유연성과 친밀감을 강화/ 가족 내 외부의 자원 발견 및 활용 · 의사소통 과정- 명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향상</p>
<p>최정숙 외 (2015)</p>	<p>· Walsh(1998)의 가족 탄력성 · 강점관점, 생태체계관점, 발달관점</p>	<p>이혼가족의 도전 대처 능력 강화 및 가족탄력성 향상.</p>	<p>· 신념체계- 당연한 도전(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가족의 인식과 긍정 · 조직유형- 가족 응집력 강화를 위한 가족 미션 수행(가족사랑 표현, 엮기 가족 단체사진 촬영, 한 줄 다짐, 사랑의 실행시, 우리 가족 사랑의 표현 실천 및 소감, 다른 가족 탐색하고 배우기) · 의사소통 과정- 가족 의사소통 역량 강화(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마음을 여는 대화와 닫는 대화(경청과 공감, 나 전달법)</p>
<p>방미란 외 (2016)</p>	<p>·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 강점관점</p>	<p>치매노인 부양부담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우울을 대처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 강화</p>	<p>· 신념체계- 치매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인식/ 가족탄력성/ 가족의 강점 찾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공· 비성 공적인 예 토론 · 조직유형-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가족원의 스트레스 관리(웃음치료)/ 가족의 규칙과 기능적인 규칙 구성/ 가족 상호작용 증진/ 지역사회 및 가족원의 지원 그룹 및 자원 찾아 이용 ·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이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유형 확인 및 문제점 개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반응적 듣기)/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 6단계/ 치매 가족원에게 편지 쓰기</p>
<p>김정은 (2016)</p>	<p>· Walsh(2002)의 가족탄력성 이론</p>	<p>저소득층 청소년과 부모의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와 가족탄력성 증진</p>	<p>· 신념체계- 가족의 가치를 가치 덕목으로 구성하여 가족 공동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 가족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인식 및 수용 · 의사소통-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의 갈등 상황 인식 및 수용 · 조직유형- 모래놀이를 활용한 가족의 욕구와 상황 이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적 가족화 나누기/ 가족의 강인성과 친밀성/ 1박 2일간의 가족활동을 통한 가족의 감사할 알기/ 청소년과 성인의 뇌구조 및 발달과업 이해/ 감사나누기/ 가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기쁨과 함께 하는 기쁨 확인</p>

양옥경 외[16]는 Walsh[5]의 가족탄력성 이론과 생태 체계적 관점과 강점관점으로 개발한 양옥경 외[15]의 프로그램을 가족의 관계 증진 및 부모역할 수행 강화, 가족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회기별로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Walsh[5]의 가족 탄력성 핵심 하위 구성요소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세 영역에 따라 구성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가족에 대한 신념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인 가족과 자녀에 대한 시각과 신념체계를 점검한 후, 가족과 자녀의 강점을 찾고, 발달단계에 따른 행동을 이해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가족의 조직유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족의 규칙을 점검하고 가족 내 행해져 왔던 역할분담을 살피며, 부모 자녀 및 부부관계 향상 방법, 자녀행동에 대한 양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내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녀 및 가족과의 대화 형태를 살피고 교육하는 내용, 가족의 문제를 가족원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 가족원의 스트레스와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가족의 주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

램을 구성하였다.

이인수[17]는 Walsh[5]의 가족탄력성 이론을 토대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가족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핵심감정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동성과 세대 간 관계, 의사소통방식을 돌아보며, 그에 따른 이해와 더불어 가족원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원을 돌보는 과정 중에 발생한 어려움을 지금까지 극복해 오게 한 가족의 탄력성을 재발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주기에 따른 감정을 투영해 보고, 가족의 강점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만성적 역경에 대한 가족의 인지와 탄력적인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었다.

양옥경 외[19]는 1차 양옥경 외[15]에 의해 개발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양옥경 외[16]가 회기별로 재구성하였고, 효과성 재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재구성 없이 실시한 경우로서 부모로서의 리더십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최정숙[20]은 Walsh[5]의 가족 탄력성 개념과 강점관점, 체계적 관점, 발달 관점, 예방적, 사전적 관점을 바탕으로 입양을 앞두고 있는 입양부모의 새로운 가족 적응과 대처를 위해 가족탄력성 하위 개념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입양의 긍정적 의미와 시각 및 초월과 여성 강화를 위한 역할 모델을 찾고, 가족유대 및 협동력 강화를 위한 과정 및 사회적 자원을 찾아 가족원 간에 명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최정숙[21]은 Walsh[5]의 가족탄력성 개념과 강점관점, 생태체계 관점, 발달 관점, 예방적, 사전적 관점으로 결혼 초기 부부의 새로운 국면 대처와 적응을 목표로 하였다. 신념체계 강화를 위해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강화하고 부부의 강점과 잠재력을 찾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역할 모델을 찾도록 구성하였다. 가족의 조직유형 점검과 강화를 위해 가족 도전과제에 따른 가족규칙과 역할분담 조절 및 역량강화, 부부의 협력적 태도 및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가족 외부의 사회적 자원을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리고 부부의 명료하고 개방적인 부부의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과정을 포함하였다.

최정숙[22]은 Walsh[5]의 가족 탄력성 개념과 강점관점, 생태체계 관점, 발달 관점, 예방적, 사전적 관점으로 개발한 최정숙[21]의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결혼 중기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내용은 중기 부부의 강점 인식과 부부관계 돌아보기, 명료한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적인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 적응 및 응집성 강화이다.

김연수[23]는 양옥경 외[15]에 의해 Walsh[5]의 가족탄력성 이론과 생태 체계적 관점과 강점관점으로 개발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양옥경 외[16]가 회기별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김연수[23]가 아동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부모역할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결혼 이민자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 문화적 민감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신념체계와 양육에 관한 문화적 차이를 점검하고, 가족과 자녀의 강점을 되짚어 보고, 가족규칙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부모 자녀 및 부부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술 및 효과적인 자녀 훈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과 가족의 어려움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부모로서의 자기관리에 관심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연수[36]는 Walsh[5]의 가족 탄력성 개념과 강점관점, 생태체계 관점, 발달 관점, 효과적인 가족기능의 핵심 요소들에 입각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내용은 부부 및 가족의 강점 찾기, 부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 부부만의 시간 계획 및 친밀한 부부관계 만들기, 서로 돕는 부부 규칙과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방법 찾기,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분노조절과 문제 해결 기술 배우기, 효과적인 자기 관리를 위한 가족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김고은[24]은 Walsh[4]의 가족탄력성 개념으로 장애

아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 증진 및 자녀와의 친밀감 강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및 장애자녀에 대한 이해와 강점관점 시각 전환, 가족의 유연성 및 바람직한 훈육방법, 사회적 자원 탐색,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적인 문제 해결 기술 증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양무희[25]는 Walsh[5]의 가족 탄력성 이론과 강점관점, 탈 병리적 관점, 예방적·사전적 관점으로 암 환자 가족의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족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가족 간의 신뢰감을 넓히고, 가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율성 인정과 가족 응집성, 도전 및 대처능력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과 사회적 지지를 넓혀가는 것, 환자 가족의 역경에 대한 명료하고 개방적인 정서 나누기, 의사결정 공유하기,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죽음에 대한 직면과 well-dying 인식을 통해 가족의 관계와 상처를 회복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김은정[26]은 Walsh[37]의 가족탄력성 개념을 토대로 한부모의 양육태도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내용으로는 집단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및 친밀감과 응집력을 형성한 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세우는 과정과 가족 유연성 향상 및 양육방법 증진, 명확하고 개방된 감정표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훈련, 실질적인 자원 탐색을 통해 한 부모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이 상호지지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임희수[27]는 McCubbin & McCubbin[38]의 가족탄력성 모델 및 관련 문헌 고찰을 기틀로 만성 조현병 환자 가족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내용은 조현병의 특성과 가족의 역할, 가족의 강점 알기, 가족의 위기와 행동 및 정서적인 반응을 이해하고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가족 의사소통 유형과 효과적인 방법,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대처방법, 가족의 적절한 감정 표현과, 이완, 대처, 타임아웃 방법의 내용과 가족자원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석혜경 외[29]는 Walsh[5]의 가족 탄력성 개념과 생태체계 관점과 발달 관점으로 치매노인이 직면한 가족

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치매가족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가족의 강점을 찾고, 가족의 역경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의 유연성과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과 가족 내·외부의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최정숙 외[30]는 Walsh[5]의 가족탄력성 이론적 개념과 강점관점, 생태체계 관점, 발달 관점을 토대로 이혼 가족의 도전에 대한 대처능력과 가족탄력성을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혼 가족의 당면한 도전인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와 가족 응집력 강화를 위한 가족 미션 수행으로서 가족사랑 표현, 엮기 가족 단체사진 촬영, 한 줄 다짐, 사랑의 삼행시, 우리 가족 사랑의 표현 실컷 및 소감, 다른 가족 탐색하고 배우기를 미션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듣기, 말하기, 문제 해결하기 등의 과정과 마음을 닫고 여는 대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방미란 외[31]는 Walsh[5]의 가족 탄력성 이론과 강점관점으로 치매노인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지각된 건강상태 및 우울을 대처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 강화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치매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 인식, 가족탄력성 개념 전달, 가족의 강점 찾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공적·비성공적인 예 토론하기,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가족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웃음치료를 접목하였다. 가족의 규칙과 기능적인 규칙을 구성하고, 가족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과정과, 치매환자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및 가족원의 지원 그룹 및 자원을 찾아 이용하도록 하였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유형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반응적 듣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6단계, 치매가족에게 편지 쓰기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개발하였다.

김정은[32]은 Walsh[37]의 가족탄력성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과 부모의 가족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변화를 목적으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족의 가훈을 가치 덕목으로 구성하여 가족 공동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는 과정과 가족의 갈등 상황에 대해 인식 및 수용하는 과정과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탐색하고, 모래놀이를 활용하여 가족의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화를 통해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가족의 강인성과 친밀성 강화를 위한 1박 2일간의 가족공동체 활동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여 가족의 감사함을 깨닫도록 하였다. 청소년과 성인의 뇌구조 및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과정과, 가족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기쁨과 함께 하는 기쁨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논문으로 등재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최근 등재된 2016년까지의 16개 논문을 프로그램 수행요소와 개발요소 2개 영역과 9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의 수행요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자녀의 어머니, 정신장애인 가족, 예비 입양부모, 다문화 가족, 결혼 초기와 중기의 부부, 장애아동의 아버지, 한 부모 가족, 암 환자 가족, 치매노인 가족, 이혼가족, 저소득층 가족이었고, 각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는 1~2편으로 큰 편차 없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이 밖의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총 16편의 연구 중 9편(56.25%)은 아동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경우인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3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이었다. 부모 또는 한 부모, 이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논문은 9편 중 6편으로, 총 참여자 81명 중

아버지 참여자가 26명(32%), 어머니 참여자가 55명(68%)으로 어머니 참여가 월등히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원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총 16편 중 6편(37.5%)이고, 나머지 10편(62.5%)은 가족원 한 사람만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특성상 아버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도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사회제도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이 재조명될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좋은 아버지 모임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여성에게 편중된 자녀양육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27]. 따라서 향후에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확대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참여 그리고 다수의 가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가족원들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연구의 설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일 실험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된 연구는 6편(37.5%)으로 연구의 대부분 가족의 강점과 응집력, 적응성, 의사소통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진행된 연구는 7편(43.75%)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 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 가족 강인성, 가족의 의사소통의 명확성, 문제 해결 능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이밖에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사후·추후 실험집단 설계로 진행된 두 연구 모두 양육 효능감이 추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부모역할 만족도와 가족관계에 대한 추후 검사에서는 사후 검사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사전·사후·추후 실험집단 설계로 진행된 연구의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인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추후에도 일관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질적 분석만을 수행한 연구는 1편(6.25%)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를 질적 분석만으로

는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겠다.

한편 실험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을 병행한 통합 연구가 16편 중 7편(43.75%)이었다. 이는 각 연구의 결점을 보완하여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석[7]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각 연구의 프로그램 진행 기간 및 시간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이 8주간, 또는 1박 2일간의 다양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 회기 당 최소 50분에서 최대 180분간 이루어졌다. 각 회기 당 시간과, 총회기를 합산한 결과, 시간당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1박 2일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총 8시간부터 18까지 큰 폭의 편차가 있었다.

종합하여 볼 때, 총 8회기, 회기 당 120분, 총 16시간 진행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회기와 시간을 연구한 결과[39]와도 일치하는데, 프로그램의 회기 및 시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시간과 회기 구성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진행자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가 함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구자와 보조 진행자는 가족이 처한 상황과 특징 및 가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집단의 크기에 따른 보조 진행자의 유무와, 수, 가족탄력성에 대한 이해 및 가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진행자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척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탄력성 척도와 가족기능 척도, 가족관계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측정 문항은 총 27문항에서 131문항에 이르기까지 문항의 폭이 매우 크고 다양했다. 또한 측정도구 외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및 효과에 대한 참여자 평가를 실시한 논문이 5편(31.25%)으로 측정도구를 통해 나타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완하여 나타낸 점과, 연구자들이 연구목적에 맞게 자체 개발한 신념체계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눈에 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요소를 분석한 개발 근거와 개

발의 목적, 개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편 중 11편은 Walsh[4][5][37]의 가족탄력성 이론적 개념과 강점관점, 생태체계 관점, 발달 관점, 예방적·사전적 관점으로 가장 많았고 4편은 Walsh의 이론으로 개발된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으며, 나머지 1편은 McCubbin & McCubbin[38]의 가족탄력성 모델로 개발하였다. 이처럼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은 가족탄력성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Walsh와 McCubbin & McCubbin의 이론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더 타당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 목적을 분석한 결과 가족과 부부의 관계 및 기능 증진, 이혼 및 한 부모를 포함한 부모역량 강화, 장애 가족원과 환자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의 새로운 적응과 가족의 탄력적인 힘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탄력적인 힘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발 근거가 되었던 가족탄력성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인 가족 신념,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을 바탕으로 하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가족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신념의 변화, 가족원의 강점을 이끌어 내기, 가족의 어려움과 위기로 새로운 적응이 요구될 때, 가족의 이전 규칙이나 역할 등에 대한 융통성 있는 변화와 체계 갖추기, 가족 주변의 자원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가족원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가족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등이다. 따라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 내용은 이론적인 개념을 토대로 하되, 가족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담겨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은 아버지를 배제하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부모 참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부의

참여도가 모의 참여도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가족원 중 요 보호자 한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부 참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특히 남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의 형태를 고려하여 부모, 부부 및 요 보호자 이외의 다수의 가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 중 추후 검사를 수행한 논문은 총 16편 중 3편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수행 후 추후 검사를 미 수행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추후 검사를 수행하여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의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의 총 회기 및 회기 당 시간과 총 시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프로그램의 시간과 회기의 구성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갖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통합적 연구로 프로그램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질병과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환경의 변화, 경제적 빈곤에 따른 어려움과 부적응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이 많다. 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각 가족이 처해 있는 다양한 문제와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4.  
 [2] <http://www.kostat.go.kr>, 통계청,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 2018(11).  
 [3] 김미라, 김명찬, “가족해체 위기를 겪은 다문화아동의 집단상담경험에 대한 상담자의 자문화기술지,” *복지상담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121-146, 2018.  
 [4] F. Walsh,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Vol.35, No.3, pp.261-281, 1996.  
 [5] F.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공]역 나남출판, 2002.  
 [6] D. R. Hawley and L. DeHaan,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Vol.35, No.2, pp.283-298, 1996.  
 [7] J. M. Patterson, “Inter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pp.349-360, 2002.  
 [8] 김안자, “가족레질리언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27권, pp.73-102, 2009.  
 [9] 이은희 “가족탄력 모델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환자가족의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1권, 제41호, pp.173-200, 2000.  
 [10] 김미옥, “장애이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pp.9-23, 2001.  
 [11] 송자경, “간질아동 가족통정감(Family Coherence)과 아동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15권, pp.157-184, 2005.  
 [12] 송순인, 장덕희, “정신장애인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제15권, 제2호, pp.87-106, 2010.  
 [13] W. R. Saltzman, “The focus family resilience program: An Innovative Family Intervention for Trauma and Loss,” *Fam Process*, Vol.55, No.4, pp.647-659, 2016.  
 [14] H. I. McCubbin, M. A. McCubbin, A. I. Thompson, S. Y. Han, and C. T. Allen, “Families under stress: What makes them resilient,”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Vol.89, No.3, pp.2-11, 1997.  
 [15] 양옥경, 김연수,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 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제11권, pp.115-147, 2003.

- [16] 양옥경, 김연수,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호, pp.225-261, 2004.
- [17] 이인수,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정신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221-239, 2004.
- [18] 주소희, “정신장애가족을 위한 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복음과 실천, 제36권, pp.383-407, 2005.
- [19] 양옥경, 김연수, 권자영,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pp.143-173, 2006.
- [20] 최정숙, “입양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예비입양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20권, pp.361-397, 2007.
- [21] 최정숙, “결혼초기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3권, pp.103-152, 2008.
- [22] 최정숙, “중년기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7권, pp.175-208, 2009.
- [23] 김연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4권, pp.189-222, 2008.
- [24] 김고은, “장애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443-465, 2011.
- [25] 양무희, 윤경자, “암환자와 그 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제1호, pp.121-139, 2012.
- [26] 김은정, “한부모의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37-159, 2013.
- [27] 임희수, 한금선, “만성조현병 환자 가족의 극복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1호, pp.133-142, 2013.
- [28] 김명수, 김윤진, 김정수, 김정옥, 서경, 신나라, 이성은, 이현정, 조영진, 최호찬, 한순영,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 레질리언스 증진 프로그램 제안,” 연세상담코칭연구, 제2권, 2014.
- [29] 석혜경, 최정숙,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제23권, 제3호, pp.499-523, 2015.
- [30] 최정숙, 전명의, 양혜원, 김희수, “이혼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제23권, 제1호, pp.23-53, 2015.
- [31] 방미란, 김옥수, “치매노인 주 부양자에게 적용한 가족탄력성 강화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성인간호 학회지, 제28권, 제1호, pp.71-82, 2016.
- [32] 김정은, “저소득 가족의 통합적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학교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제4호, pp.199-214, 2016.
- [33] 박혜란, 진귀연,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현황과 과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6호, pp.1059-1081, 2012.
- [34] 김석선, 조현미,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18권, 제4호, pp.89-98, 2018.
- [35] 김영림, “뇌교육 감정노동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동향 고찰,” 뇌교육연구, 제19권, pp.7-30, 2017.
- [36] 김연수, “가족탄력성 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59-90, 2010.
- [37] F. Walsh, “Strengthening family framework :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 Family Relations, Vol.51, No.2, pp.130-137, 2002.
- [38] M. A. McCubbin and H. I. McCubbin,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Harmel-Bissell & P. Winstead-Fry(Eds.),

Family, health, and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 MO: Mosby, pp.21-63, 1993.

[39] 이재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308-318, 2016.

### 저 자 소 개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2000년 8월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정신건강 사회복지, 사회복지